

이원재 1차관, “건설 기능인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” 강조 - 22일 건설 기능인의 날 기념식서 철탑훈장 등 포상 수여 -

□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11월 22일(화) 오전 11시 포스트타워(서울 중구)에서 열린 건설 기능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건설업 발전에 기여한 기능인들에게 포상*을 수여하고 격려했다.

* 총 8점 : 철탑 훈장(1), 산업 포장(1), 대통령 표창(3), 국무총리 표창(3)

** 국토교통부장관 표창(14), 고용노동부장관 표창(15)은 추후 개별전수 예정

○ 기념식에는 행사의 주인공인 건설 기능인들을 비롯하여 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 및 유관 협회 관계자, 노동조합 관계자를 포함한 1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함께하였다.

□ 건설 기능인은 건설현장에서 기능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표현으로, ‘건설 기능인의 날’ 제정 시 부터 사용하고 있으며,

○ ‘10년부터 개최하여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‘건설 기능인의 날’ 행사는 건설 기능인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고, 건설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11월 22일*에 열리고 있다.

* 서서 일하고(11), 허리 숙여 일하는(22) 건설근로자의 모습을 형상화

□ 이 차관은 “건설업의 핵심 기반이자 주체는 현장에 계신 건설 기능인 여러분”이라면서, “사고 없는 현장을 위해 안전을 제1순위로 생각해 주실 것”을 당부하였으며,

○ “정부 역시 건설 기능인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, 작업 환경 개선에 노력”하겠다고 뜻을 밝혔다.

2022. 11. 22.

국토교통부 대변인